

Morphological Variation of *Messor aciculatus* (Hym., Formicidae) from Korea

하소진, 박성준, 김병진

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

생물군의 다양성은 종 분화 과정에서 축적된 유전적 변이와 형질의 변형에 의해서 일어난다. 형질의 변형은 분화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, 종 분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, 독립적인 종 분화 과정을 밟기도 한다. 분화의 과정은 연속적이기도 혹은 불연속적이기도 하여, 종의 단계에서 볼 때 각 종은 그들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혈연적 연관을 통해 연속적으로 나누게 되나, 두 종 혹은 상위 분류군간의 불연속성은 종 분화의 산물이 된다.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방법인 외부 형태 형질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계통분류학을 연구하고 있다.

두배자루마디아과 짱구개미屬(*Messor*)은 세계적으로 105종이 알려져 있으나, 우리나라에는 *Messor aciculatus*(짱구개미) 단 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. 국내에 서식하는 1속 1종인 짱구개미는 지역적으로 일개미의 다형현상을 보인다.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으로 다양성을 보이는 *Messor aciculatus*의 지역별 변이를 형태측정을 이용한 분석으로 종내 변이의 정도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.

7개 조사지역인 운장산, 백양사, 임실, 익산, 고창, 무녀도, 청산도 지역에서 채집된 표본들의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다양성을 볼 수 있었다. 분석결과 산간지역인 운장산과 백양사, 내륙지역인 임실과 익산, 해안가인 고창, 섬 지역인 무녀도와 청산도 순으로 머리의 폭과 길이가 대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.

본 연구를 통해서 *Messor aciculatus*는 한반도의 남한내에서도 서식 지역의 환경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리적 변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.